

## 극연(劇研) 제11회 공연(公演)을 보고

극예술연구회가 벌써 창립 5주년을 맞았고, 이번 제11회 공연을 보여 주었다. 이때에 있어서 어느 영역이 그렇지 않은 바 아니나, 극예술은 동의 길만큼 험난한 길도 없을 것이다. 이 험난한 형로(刑路)를 뚫고 11회나 공연을 열었으며, 회를 거듭할 때마다 모든 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현저한 진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오로지 회원 제씨의 이 땅의 문화건설자로서의 깊은 자각과 열성에 대한 존경과 그들이 수행할 문화적 업적에 대한 감사를 극연의 성장과 함께 우리들 사이에도 점점 자랄 것을 믿거니와 이에 내 종합예술인 연극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실제적 지식의 박약함을 무릅쓰고 공연 당일에 내가 느끼었던 감격과 인상의 일단을 적어 극연회원 제씨에게 대한 나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.

극연 같은 연구단체의 가장 큰 난관은 배우일 것이다. 연구단체인만큼 배우의 생활을 보장치 못하므로 그들은 각각 따로이 생활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니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요, 더욱이 여배우에 있어서는 이 땅의 현실이 역량 있는 이의 극연예의 출연은 물론 출연한 후에라도 단 2, 3회 이상의 출연을 허락치 않을 것이다. 이런 고충을 우리는 이번 공연을 통하여서도 느낄 수가 있었다.

노인 역은 모두 다 원숙한 연기를 보여 주었으나, 젊은이 역이 좀 더 세련된 연기를 보여 주었더라면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. <호수의 비극>에 있어서는 신좌현씨의 노복이 비교적 원숙한 연기를 보여 주었다.

그 외의 김일영, 조훈해, 김복진 제씨의 연기도 큰 실패는 없으나, 좀 더 세리후를 잘 들리도록 하여 주었더라면 했다.

「그 한 즐기즐기 교인(敎人)의 눈물 같고, 흥주 같은 글자는 아직도 나의 심장 속에서 고통한다」고 말하였다고 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작가의 감동으로서 느끼기 위하여는 이 연극의 세리후를 통하여 그 속의 분위 기에도 취하여야 할 것이다. 어떠한 연극에 있어서나 세리후가 중요하지 않은 바 아니나, 가장 세리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이 연극에 있어서 세리후가 일반 관중에 잘 들리지 않은 것은 좀 유감이었다. 배우가 너무나 작중의 인물의 감상에 혹익하였던 때문일까?

<자매>에서 나는 유치진씨의 노숙한 극작술과 맹만식, 김복진 양씨의 원숙한 연기에 머리를 숙였다. 더욱이 김복진씨의 재래의 과장과 종장걸이 자취를 감추고 침착해진 데는 대단히 반가웠다. 어쨌든 그들의 완전한 작중인물의 성격에의 동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다.

백은희씨의 연기는 좀 생경하였다. 그리고 조훈해씨는 너무나 현숙한 태가 있었다. 정숙이는 이제 새삼스리 연애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지가 발달된 그런 이지적이고 프라이드한 「모던 걸」이 되어 주었더라면 한다. 정숙의 비극은 결국 그의 환경과 교양이 빚어 준 그의 성격의 비극이므로 이 극에 있어서는 정숙의 성격이 꺾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. 그러나 처음 출연한 그들이 이번 연기를 통해서 다음 연 기에는 훨씬 더 원숙한 연기를 보여 줄 것을 믿는다.

「자기 시대의 눈에 보이는 모순을 희곡적으로 지적」하려는 작가로서의 유치진씨의 의도도 잘 알았으며, 지금이 확실히 「오방울」의 세상인

것도 보았고, 「윤집」과 「정숙」의 대립된 두 세계의 고민도 보았으며, 이 극을 연출하기 위해서 씨의 애쓴 고심의 흔적도 잘 느낄 수 있었다. 그리고 무대장치를 맡아 보신 김일영씨에게도 경의를 표하고 싶다.

(《동아일보》, 1936. 6. 4-5)